

보도 일시	2022. 11. 3.(목) 09:00	배포 일시	2022. 11. 3.(목)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	책임자	과장 정원상 (044-203-2531)
		담당자	연구관 위진 (044-203-2538)

제96돌 맞은 한글 점자, 새로운 일상 준비한다

- 11. 4. '제96돌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영일)와 함께 11월 4일(목) 오후 2시 '제96돌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을 에이치더블유(H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다만 국가애도기간임을 고려해 행사를 축소하고 묵념을 통해 추모할 계획이다.

'한글 점자의 날(11월 4일)'은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이 한글 표기를 점자로 쓰고 읽을 수 있도록 고안한 6점식 점자 '훈맹정음'을 발표한 1926년 11월 4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한글 점자, 일상 속 새로운 시작'이란 주제로 행사 진행

올해 기념식은 한글 점자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자는 시각장애인들의 소망을 담아 '한글 점자, 일상 속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개최한다. ▲ 일제강점기 송암 박두성 선생의 문화 독립 의지와 애맹정신에서 시작된 한글 점자 소개 영상 상영, ▲ 한글 점자 발전 유공자와 공모전 수상자 시상 등을 진행한다.

한글 점자 발전 유공자로는 ▲ 시각장애인의 재활·자립에 기여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의 부기동 씨, ▲ 점자교과서와 점자도서 제작 지침 개발 연구에 기여한 성북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의 서승희 센터장, ▲ 점자 교재 제작, 온라인 점자학교 개설 등 점자 교육에 힘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경억 과장을 선정해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이번 기념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글 점자의 날’이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점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한글 점자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96돌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 홍보물



제96돌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

- 일시: 2022년 11월 4일(금) 14:00~15:30
- 장소: 에이치더블유 컨벤션센터 3층 크리스탈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